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TEL 02-3460-7505 FAX 02 3460 7925

'글로벌 이슈 페이퍼' 정보는 전 세계 124개 무역관에서 오는 실물 경제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현안 이슈가 발생한 해외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무역 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슈 요약

TFTA 추진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 금년('15) 6월10일 이집트 엘세이크에서 아프리카 26개국 정상들이 모여 단일 자유무역협정을 출범하기로 합의. 이는 기존 아프리카내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CD),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등 3대 지역경제협정을 통합하는 자유무역협정(Tripartite Free Trade Agreement)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26개 참여국들은 상품교역의 자유화를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2017년까지 국별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 결과에 따라 향후 서비스 교역, 경쟁정책, 지적권, 무역 및 투자 관련 기타 사항에 관한 합의가 도출될 예정임
- TFTA는 품목수 기준 최대 85%의 관세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아프리카 시장내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역외 기업의 투자진출도 증가할 전망. 또한 TFTA 회원국들은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산업화가 촉진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SOC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
- 향후 TFTA 추진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우리기업은 TFTA 추진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사항에 대한 파악 및 사전 대응 전략 수립이 요망.

TFTA 추진동향 및 우리기업 진출방안

1. 동남부 아프리카 26국 단일경제블럭 (TFTA : Tripartite Free Trade Area Agreement) 추진동향

가. 동남부 아프리카內 既存 3개 경제블럭 및 통합 경제블럭(TFTA) 개요

① 기존 3개 지역경제블럭 (COMESA, EAC, SADC) 개요



□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 (목표) 역내 경제통합, FTA-관세동맹-단일통화-공동시장을 단계적 추진
- (가입국) 총 19개국으로 브룬디,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수단, 스와질란드,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 (형성과정) 1990년대 초 세계적인 경제통합 움직임(EU, NAFTA, ASEAN 등)에 의해 촉진, 기존의 경제협력체인 PTA(Preferential Trade Area of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남동부아프리카 국가특혜무역지역)에 대한 대

안으로 공동시장 창설을 위해 제시

- 1993년 11월 PTA 정상회담에서 COMESA 구성에 관한 조약체결
- 1994년 12월 동 조약 발효
- 1999년 5월 20~21일 나이로비에서 COMESA 정상회의를 개최
- 2000년 10월 31일 COMESA 자유무역지대(FTA) 출범

□ 동아프리카 공동체 (EAC, East African Community)

- (목표) 정치·경제동맹, 단일통화, 동아프리카 정치 연방설립
- (가입국)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브룬디, 르완다 5개국
- (형성과정) EAC의 첫 관심 사업이었던 관세동맹 합의는 EAC의 핵심 회원국이었던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정상들의 2003년 11월, 2004년 1월, 3월 등 조율을 통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
 - 2010년 7월, 우간다-탄자니아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케냐로부터 유입되는 물품에 대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일정률의 관세를 부과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완전 무관세로 전환
 - 2013년 8월, 케냐-우간다-르완다 정상들은 남수단 EAC 가입을 승인

□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 (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목표) 경제개발(자유무역지대 구성), 지역통합, 빈곤퇴치
- (가입국) 총 15개 회원국 앙골라·보츠와나·콩고민주공화국·레소토·마다가스카르·말라위·모리셔스·모잠비크·나미비아·세이셸·남아프리카공화국·스와질란드·탄자니아·잠비아·짐바브웨
- (형성과정)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이하 SADC)는 1992년 8월 17일 출범한 지역경제공동체로, 1980년 4월 설립된 남아프리카개발협력회의(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rdination Conference)가 전신
 - 2008년, SADC내 제품 85%에 대해 관세 철폐 확정

② 3대 지역협정 통합FTA (TFTA, Tripartite Free Trade Agreement)

- (개념) 아프리카 대륙 내 3대 경제공동체(COMESA, ECA, SADC/총 26개국)를 2017년까지 통합,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목표
- (목표) ① FTA를 통한 시장통합 ② 인프라개발 ③ 산업화 가속
- (규모) 아프리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1조 달러(약 1천110조원)에 달하는 경제권을 회원국으로 하는 최대 자유무역협정이 출범하게 되며 인구로는 6억 2600만 명이상
 - TFTA 출범 시 아프리카 전체교역에서 역내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12%에서 3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나. 그 간의 TFTA 동향

(개황)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배 종료 후, 대륙 내 교역 증진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도로, 철도, 항공 등의 열악한 인프라로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함, 이에 따라 대다수 상품에 대한 역내 관세,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교역을 증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아래 지난 5년간에 걸쳐 TFTA 협상을 진행해 옴

<TFTA 진행 내역>

- 2008년,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1차 Tripartite 정상회담
- 2011년, 이집트에서 2차 Tripartite 회담 : TFTA의 2단계 로드맵을 수립
 - 1단계 ① 관세인하 ② 원산지규정 ③ 관세동맹 ④ Non-customary impediments ⑤ 건강기준(Health Standards)
 - 2단계 ① 서비스무역 ② 재산권 ③ Prompting competition
- 2013년, 모리셔스에서 관세 세부원칙 관련 합의, 이집트 또한 관세 세부원칙

관련 제안서 제출(1차 무역협상 포럼 실시)

- 2014년: 원산지 규정 관련 제안서 제출
- 2015년: 2차 무역협상 포럼, 3차 Tripartite 정상회담 실시

다. 향후 추진 계획

- 향후 2년간 추가협상 및 각국 2/3의 의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전망으로 2017년에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 공식 출범될 전망
 - 26개국의 비준 결과에 따라 최대 85%까지 관세 자유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나머지 15%는 TFTA 출범이후 논의될 예정
 - 또한 5~8년 내 서비스교역, 경제정책, 지적권, 무역 및 투자 관련 기타 사항에 관한 합의가 도출될 예정
- TFTA 발효 시, 85% 관세 자유화를 위해서는 총 3개 카테고리가 이행되어야 함
 - ① 카테고리A: 현재 관세가 0%, 2%, 5% 해당하는 품목들로 전체 대상 품목 60% 비중을 차지
 - ② 카테고리B: 현재 관세가 10%, 20% 해당하는 품목들로 전체 대상 품목의 25% 비중을 차지
 - ③ 카테고리C: 현재 관세가 30% 이상 해당하는 품목들로 전체 대상 품목의 15% 비중을 차지. 카테고리 C 해당품목들은 A 및 B 카테고리가 자유화된 이후 협상하게 됨
- * 상세원산지규정(Detailed Rules of Origin)에는 총 3개 기준표(Matrix)가 있음
 - 기준표 1: 3개 무역권에 동일한 원산지규정 관세 적용
 - 기준표 2: 2개 무역권에 동일한 원산지규정 관세 적용
 - 기준표 3: 각 무역권에 각각의 원산지 규정 관세 적용

< Tripartite Free Trade 지역도 >



- **26개 가입국:** 앙골라, 보츠와나, 브룬디, 코모로스, 지부티, 콩고민주공화국,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레소토,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스와질랜드, 남아공, 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2. 주요국별 TFTA 체결 전후 교역 및 투자 여건 변화 전망

□ 총괄

- 역내 상품 교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 자유무역을 추구함에 따라 역내 무역 절차가 단일화되고 무역 법규가 투명화 될 것으로 전망. 아울러 회원국들은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대아프리카 외국인 투자 증가가 예상되며 중국, 인도 등 비교적 진출이 활발했던 국가들 뿐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을 포함, 우리나라 등 기업들도 생산기반 거점 확보위한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

□ 주요국

① 남아공

- (관세) 역외 공동관세 최대 85%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아프리카 시장 내 교역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투자진출 통한 시장 확대도 대폭 증가 전망
- (서비스/경쟁정책/지재권) 서비스 교역, 지재권, 인증절차 등 표준화 예상
- (투자 관련) 제조업 분야 개발을 통한 해외 투자 유입의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특히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분야에서 남아공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② 수단

- (관세) 최대 85%의 관세자유화가 목표이나 품목별로 5~8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임. 이는 기존 Comesa特惠관세가 역외국 대비 최대 40%보다 대폭 확대된 것임

- (서비스/경쟁정책/지재권/투자관련) 2017년 이후 분야별로 논의 예정임. 참고로 현재 서비스 개방은 법률, 의료부문의 경우 자국 내 인증/허가 시험을 통과해야 됨. 외국인 창업은 종합무역상, 수출이상, 언론(신문)부문 등 4가지에 대해서는 단독 창업이 금지됨. 4가지 이외는 내외국인간 차별 없음. 지재권 관련,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회원국으로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③ 탄자니아

- (관세) 역외 공동관세가 적용 시행되면 시장 접근이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으나 투자진출을 통한 적극적 시장확대 추진도 바람직 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경쟁정책/지재권) TFTA 추진으로 역내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및 역내 서비스 교역 활성화가 예상됨. 그러나 지재권 보호는 탄자니아 시장의 성숙단계를 비추어 볼 때 원활히 시행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됨
- (투자 관련) 역내 및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환경 개선에도 힘쓸 것으로 보임. 그러나 남아공, 에티오피아 등 기업환경이 비교적 좋은 국가에 투자가 편중되는 현상 발생 가능성이 있어 대탄자니아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가능

④ DR콩고

- (관세) 26개 TFTA 체결예정국가중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쟁이 약함. 특혜관세에 따라 역내국간 교역이 증가하더라도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서비스/경쟁정책/지재권/투자관련) 서비스, 지재권, 인증제도 부문에서 DR콩고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 거의 없으며 향후 TFTA 시행시 26개

회원국이 공유할 수 있는 표준(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경쟁정책 관련 DR공고는 현재 회원국에 비해 열악한 제조업 환경으로 경쟁력을 잃을 것이 우려되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특구 시행을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및 자체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⑤ 케냐

- (관세) TFTA 본격화 되면, 케냐의 관세 규정은 TFTA 관세 조항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나, 민감품목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중인 쌀 (70%), 우유 및 밀가루(60%), 옥수수 및 옥수수가루(50%), 밀(35%)과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25% 이상 관세를 부과중인 설탕, 타이어, 중고의류 등은 상당한 조율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경쟁정책/지재권) 동아프리카 금융권을 케냐에서 주도하고 있어 TFTA 본격 추진시 케냐가 일반 금융서비스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음. 케냐는 2008년에 위조품 관리법 (Anti-Counterfeit Act)를 제정하고 지재권관리청 (Kenya Copyright Board)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투자 관련) 케냐는 TFTA를 통해 동아프리카의 허브로 발돋움하여 허브 거점을 활용한 여타 동남부 아프리카 국가로의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음. 정부차원에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1) 가축 제조업 재건, (2)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 10년 재연장에 따른 섬유제조업 육성, (3) 현지 건설업 활황에 따른 가구제조 분야 육성에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및 정책지원을 구상하고 있음. 특히, 경제특별구역법 (SEZ)이 2015년 내 최종 법안으로 채택될 예정이며, 동 법에 따라 현재 수출자유지역 내 제조품의 20%만 국내시장 (EAC역내 5개국시장을 의미)에 허용하던 것을 최대 50% (특별 품목의 경우 100%까지 허용)까지 허용할 예정이며, 자국내 5개 핵심지역에 경제특구를 구성하여 산업단지형 제조업 육성 정책을 주도할 예정임.

⑥ 모잠비크

- (관세) 모잠비크 경제 전문가들은 TFTA가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15.6.10 장관회의에서 TFTA 체결을 인정하는 성명서에는 참여하나 TFTA 초안 동의서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서비스/경쟁정책/지재권/투자관련) 모잠비크 산업부 관계자, TFTA 초안의 지재권, 서비스 등 조항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힘. TFTA 동의안이 각국 의회 승인 기간으로 책정된 2년 동안 TFTA 자유무역협정이 모잠비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

⑦ 에티오피아

- (관세) TFTA로 인한 교역 자유화에도 에티오피아는 제조업 비중이 10% 초반대에 머물러 있어 그 기반이 취약하여 상품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에티오피아 정부는 시장 개방시 제조업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서비스/경쟁정책/지재권) 10년간 지속해온 10%대의 경제성장 기반은 건축 붐에 따른 임대업, 호텔,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 주요 산업인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해왔음. 그러나 시장개방시 자국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위협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한편으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외 경쟁력 심화로 국제적 수준으로의 업그레이드 등 국제 경쟁력 강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견 병존
- (투자 관련)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금융 분야 외국인 투자 진출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전환 예정. 아울러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 및 이를 통한 외국 투자기업 적극 유치, 기술 협력 등의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3. TFTA 추진에 따른 현지 바이어 및 한국 투자진출기업 반응

□ 바이어

- TFTA가 아프리카 대륙내에서 유럽의 EU와 같은 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아프리카 경제 및 무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현재 아프리카 역내 교역은 미미한 상황이며, TFTA를 통해 전반적으로 교역이 활발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봄.
- S사, L사 등 글로벌 브랜드는 인지도가 높으나 동 사들이 한국회사 인지는 잘 모르고 있을 정도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 낮은 편임. 한국제품은 중국, 인도, 이집트 산 등 저가품들과 경쟁을 하고 있어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 요인으로 평가. 가전, 자동차 등은 역내 회원국에서 수출 수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품목들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TFTA가 추진될 경우 역내 현지 투자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무역관별 바이어 반응 상세내용 첨부 참조

□ 현지투자기업

- (제조업 종사기업)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투자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됨. 투자기업이라도 공장 없이 제품을 수입해서 오는 경우는 관세를 지불해야 하며, TFTA 발효시에는 경제블록 범위가 지금보다도 넓어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 공장 설립도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Value-Up 전략으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프로젝트수주기업) 역내 국가에서 건설 프로젝트 추진시 자재구매 및 공사 부문에 긍정 효과가 기대됨. 관세.물류비 등 직접구매 절감, local bulk 기사재

구입선 확대 및 이에 따른 자재비 절감 기대, 건설인력 적기 수급 및 건설 노무비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됨. 초기 영업 단계에서 마케팅 활동 시 TFTA 추진에 따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네트워크 개발 추진 예정. 특히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Investment Bank측과의 투자 협상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무역관별 현지투자기업 인터뷰 상세내용 첨부 참조

4. TFTA 추진에 따른 무역관 의견 및 우리기업 시장진출 방안

□ TFTA 추진에 따른 KOTRA 무역관 의견

- 산업화 촉진 및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전망
 - TFTA 추진으로 각 국에서는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위한 산업화가 촉진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SOC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
 - 역내 생산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환경이 좋은 남아공, 케냐, 에티오피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진출위한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전망
- 거점지역 활용시 수출확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한국기업의 경우 남아공, 케냐 등 아프리카 거점국가 주요 도시에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이점 활용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케냐의 경우 경제특별구역(SEZ)을 지정하여 동 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임
- 수단, 모잠비크는 TFTA 체결에도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
 - 수단은 TFTA 이슈에 비해 1997년부터 지속되는 미국 경제제재 해제 여부가 경제 분야 최대 관건. 테러, 반군활동, 인권탄압 등 경제제재 이슈가 정치적 사항으로서 단기간내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며 TFTA 추진에도 동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모잠비크는 자국 제품들이 타국 제품들에 비해 가격이 높고 품질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실제로 모잠비크 정부는 TFTA 초안

내용들이 자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초안 동의서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TFTA 체결을 인정하는 성명서에는 참여)

□ 우리기업 시장진출 방안

○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적극적 참여필요

- TFTA는 역내 투자활성화와 인프라 개발을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
- . 적극적인 수주 마케팅으로 아프리카 프로젝트시장에 refrence 확보필요
- 관세, 물류비 절감, 건설일력수급과 구입선의 다양화로 프로젝트 공사 수행에 있어서도 긍정적이 효과가 기대됨

○ 수출기업은 현지 진출 적극적 검토 필요

- 한국 수출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
- . TFTA내 관세철폐시 역내 제조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의 수출 영역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역외 수입품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
- . 자동차, 타이어 등의 제품은 아프리카내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
- 남아공, 이집트, 케냐 등에 적극진출 필요
- . 아프리카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가 중심으로 진출
- . TFTA가 상기 국가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집중적으로 촉발할 가능성이 높음
- . 남아공, 케냐의 경제특별구역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TFTA 역내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TFTA 추진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아프리카 26개국 정상들이 이집트 엘세이크에서 '15. 6월10일 아프리카 대륙내 3대 지역경제협정간 단일 자유무역협정(TFTA)을 출범하기로 합의
- 참여국들은 향후 2017년까지 자국 의회의 비준을 받는 승인 절차를 밟을 예

정이며, 아울러 서비스 교역, 경쟁정책, 지재권, 무역 및 투자 관련 등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도 협상을 진행할 예정

- 이에따라 앞으로 참여국간 협상 진행 과정에 따라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진행되는 TFTA 추진사항에 대해 언론보도 및 코트라, 대사관 등 관계기관 정보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구체적인 사항 진행내용들에 대한 파악 및 대응 필요

※ 첨부 : 1. TFTA 추진에 따른 주요국별 바이어 및 한국투자기업 반응
2. TFTA 체결 전후의 교역 및 투자여건 비교
(관세/서비스.경쟁정책.지재권/투자 관련 등) < 끝 >

□ 첨부1 : TFTA 추진에 따른 주요국별 바이어 및 한국투자기업 반응

질문내용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바이어) 1. 경제블록 통합에 대한 반응 2. 통합 추진에 따른 향후 수입 시 변화 및 우선 고려사항 3. 한국상품 인지도 및 평가 4. 바이어가 본 한국상품 수출(구매) 확대 방법 5. 향후 한국상품 수입 가능성 등
	(투자진출기업) 1. 경제 블록 통합에 대한 진출기업 반응 2. 통합 전후의 현지 경영 차이점 3. 향후 대응방안 4. 잠재 투자기업(향후 대아프리카 투자예상기업)에 해주고 싶은 조언 등

국가별 바이어/투자진출기업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바이어: T社 (All gas products, Stoves, Accessories, HS Code: 7321 연간매출액: 500만 달러 이상) 1. 비즈니스를 하는데 있어 낙후된 인프라 시스템과 자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2.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3. 한국제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에서는 크게 떨어지나 품질면에서는 아주 만족함. 또한 한국제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도 현저히 낮으므로 한국산 제품에 'Made in Korea'가 적힌 문구나 태그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 4. 소비자들에게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함. 한국제품의 높은 품질을 인지시켜야함. 5. 향후에도 동사 취급 품목인 스토브나 관련 액세서리를 수입할 예정.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바이어: B社 (Earthmoving equipment, 연간매출액: 600만 달러 이상) 1. TFTA가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유럽의 EU와 같은 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향후 아프리카 경제 및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현재 아프리카 역내 교역은 미미한 상황이며 TFTA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 내의 교역이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이미 동아프리카에서는 경제블록 통합을 감안하여 관련 프로젝트에 착수하였음. 2. 통합추진으로 인한 무역분쟁과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피해. 대기업 위주 성장 유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폐해. 교역통합으로 고용창출, 지역 인프라 구축, 투자개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3. 아시아 대륙에서는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저렴한 중국 제품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며 글로벌 브랜드인 S사, L사조차도 한국 브랜드인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임. 4. 현재 남아공 화폐인 랜드(rand)의 약세로 인하여 수입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국내 업체들의 협조 요망. 최소주문량 협상 및 운송비 최소화. 할랄이나 코셔, CE 같은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 보유로 남아공의 복잡한 인증 및 품질 보증 최소화. BBBEE(흑인경제육성정책)을 따라 현지 흑인 기업과 협력하여 정부의 입찰 건 진출. 제품별로 다르기는 하나 현지 조립공장 설립 시 현지인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보고 정부의 지원 수령. 5.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제품을 구매하여 낭패를 본 수입자들은 가격은 높지만 중국제품 대비 품질이 좋은 한국 제품을 선호.
	바이어: H社 (Heavy Equipment, 연간매출액: 200,000 달러 이상) 1. TFTA에 인지하고 있으며, Hyscot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2. 향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동 사의 주요 수출국은 앙골라, 나미비아, 보츠와나, 모잠비크, 잠비아 등 5개국이며, 동 5개국은 SADC 회원국으로 무관세임. 3. 현대, 대우, 삼성 등이 잘 알려져 있으나,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음. 4. 가격경쟁력 제고 및 지불방법 개선. 5. 향후에도 계속 한국제품을 수입할 것이며, 올해도 일괄구매 2회 완료.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투자진출기업명: N사 1. 경제공동체 문제는 국내 타이어 업계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남아공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4개로(BRIDGESTONE, CONTINENTAL, GOODYEAR, DUNLOP by SUMITOMO)상위권 업체들이 남아공에 공장을 두고 OPERATION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35%의 관세를 지불하는 수입산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인 짐바브웨, 모잠비크 등 남부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로인 상황. 이에 공동체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경우 남아공산 타이어는 더욱 큰 혜택을 얻을 것이며,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산들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임. 3.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임. 국가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던, 아니면 아프리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던가 하는 방법들은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임. 이에 아프리카 타이어 시장은 향후 현지공장과 값싼 중국산의 발이 될 것으로 보고, 한국산은 물량확대보다는 VALUE-UP 전략으로 가야할 것임.
	투자진출기업명: G건설 1. 수주산업인 업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 역내 국가에서의 Project 건설 추진 시 : 자재구매 및 공사부분에 긍정 효과 기대. - 관세, 물류비, 등 직접비 절감. - Local Bulk 기자재 구입선의 확대 및 이에 따른 자재비 절감 기대. - 건설공기 단축 효과. - 건설인력 적기 수급 및 건설 노무비 절감 효과 기대. - Project 수행 시 다국적 공사 Sub-Contractor 투입 부분에 대한 Flexibility 증가 기대. ○ 영업 Marketing 환경개선 기대. - 2개국 이상 관련되는 사업추진 시 사업성 (Feasibility) 확보에 도움(우간다 ~ 케냐 뽀카사 철도/Pipeline Project). 2. 초기 영업 Marketing 시 환경 변화 적극 반영 Network 개발 추진 예정, 특히 개발 project의 경우 Investment Bank 측과의 투자 협상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3. 금번 통합에 따른 권역내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공유를 위해, 추진 취지 및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초청 Seminar 및 Conference 등을 개최해 주시면 도움됨.

수 단	바이어: E社 (페인트 원료) 1. 향후 수단의 제조 상품의 역내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은 분명해 보임. 2. 페인트 제조업 여건상 원료의 테스트 관련 사항이 많아 기술적 요인과 더불어 품질, 가격 요인이 여전히 중요함. 3. 자동차(현대, 기아), 전자(삼성, LG), 중장비(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자동차 부품은 이미 시장에서 보편화된 인지도를 나타냄. 그러나 이외 제품은 중국,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UAE 제품대비 인지도가 약함. 4. 동 품목의 경우 안정적이고 합리적 가격 제공여부가 진입 후 시장 확대를 보장할 수 있음. 5. 동 제품은 이집트 제품이 강력한 경쟁상대로 관세우회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 공급하므로 써 가격경쟁력 확보가 관건임. 한국산 기술력을 활용한 신규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당사는 한국 상품 수입 및 제조를 적극 추진예정임.
	바이어: C社 (자동차페인트) 1. 금번 TFTA 통합에 따른 최대 역내 수혜국은 이집트가 될 것임. 이집트는 Comesa 멤버국이며 수단과는 양자 무역협정을 맺고 있음. 전기/전자 및 가정용품 등 전반적 제조업을 두루 갖추고 있어 이집트는 상당한 시장 확대를 경험할 것임. 2. 제품의 품질이 가장 중요함. 현재 한국산 제품의 기술력과 융합된 제품이 현지 제조될 예정인 것을 알고 있음. 3. 자동차, 전자제품의 경우 한국산 인지도가 매우 높으나 자동차 페인트 부문은 아직까지 이집트산 브랜드가 가장 높음. 한국산은 아직 시장 진입을 못하고 있음. 4.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시장에서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5. 자동차 페인트 부문은 이집트 제품이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집트산 제품의 독점 딜러십을 유지할 예정임.

수 단	바이어: T社 (전자제품) 1. 기존 Comesa(19개국) 멤버국중 최대 교역 파트너는 이집트임. 이집트는 제조업을 두루 갖춘 국가이나 기타 역내국은 농산품류 등 1차원료 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임. 2. 가격이 가장중요함. 다음으로 품질임. 가전부문에서 중국산, UAE, 이집트 등 국가의 수입규모가 견고하며 품질도 시장에서 판단할 때 나쁘지 않은 편임. 3. 전자제품은 S사, L사 등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음. 필립스 등 유럽산 가전제품도 최근 증가추세이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4. 금번 TFTA과 한국산 제품의 수출은 사실상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이미 진입한 가전, 자동차 등은 향후 역내 멤버국에서 수출 또는 수입이 이루어지기 힘든 품목임. 5. TFTA와 무관하게 한국산 제품 수입을 염두하고 있음. 바이어: D사 (제약 제조업) 1. 제약업종은 관세 영향력이 적으며 현재 원료를 수입 제조판매 하므로써 단기간내 TFTA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 2. 제약업 등록은 최소 2-3년이 소요되므로 향후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 진후 모색할 사안으로 판단. 3. 현재는 없음. 4. 수단은 미국경제제재 지역으로 TFTA 시장확대 보다 현지의 대외교역 제한 사항이 먼저 염두 되어야 함.
탄 자 니 아	바이어 (전반적 반응) 1. 탄자니아의 주요 교역국은 인도, 중국, UAE, 유럽, 남아공, 케냐 등으로, TFTA 추진에 대해 바이어는 크게 동요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만일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 제조업체일 것임.)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TFTA는 수입선이 다변화 하는 것과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저렴해지는 효과가 예상됨.

탄 자 니 아	한국 투자진출기업 (전반적 반응) 1. 현지진출 한국기업은 TFTA를 아프리카시장에 대한 확대 기회와 위기로 동시에 생각하고 있으나,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D R 콩 고	바이어: FEC (콩고 전경련/ 전체 업체를 대표하여 설명) 1. 콩고의 취약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못하면 TFTA 시행에 따른 혜택을 보기 어려움. 2. TFTA가 시행되더라도 기계, 장비 등 선진국형 제품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한국제품의 대 DR콩고 수출액이 2,600만달러(2014년)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아직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특히 한국제품은 유럽산과 동등한 품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확대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TFTA가 추진될 경우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지 투자를 통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투자진출기업명: S社 (이동통신, 인터넷서비스) 1. 동사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써 서비스 지역이 DR콩고 내로 제한되어 있음. 장비 도입시에는 대부분 한국산을 수입하고 있어 TFTA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임.
케 냐	바이어: T사 (Roof Tiles, 100만 USD) 1.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2. 통합된다고 하여도 가격과 품질을 가장 먼저 살필 것임. 3. 한국 상품은 중국과 인도 제품에 비해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또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4. 타 국가에 비해 한국업체는 현지에 독자적인 유통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게 너무 약함. 유럽이나 뉴질랜드, 영국 등과 달리 한국의 공급업체들은 독점판매권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지 않으며, 시장 내의 많은 유통업자들에게 똑같은 상품을 공급하는 특성이 있음. 이는 현지에서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할 때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케냐인 수입업자들의 충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5. 수입할 계획은 있으나 독점판매권에 대한 계약을 맺고 싶어 함.

케 냐	바이어: S社 (가발 제조) 1. 경제 블록 통합에 대해 긍정적 2. 통합 이전에는 국가별 무역 블록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장이 없는 지역에 수출할 경우, 고려해야하는 점이 많으나 TFTA이후에는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3.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TFTA를 통해 제품 수출 및 통관 절차가 간단해짐에 따라 사업 확장 기대. 4. 잠재 투자기업(향후 대아프리카 투자예상기업)에 해주고 싶은 조언으로는 아프리카가 성장률도 높고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른 만큼,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 있으니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를 놓치지 않고 많은 진출을 시도하길 바람. 투자진출기업명: S社 (가전제품) 1. 경제 블록 통합에 대해 긍정적, 2. 통합 전후의 현지 경영은, 사업구조 측면으로 본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남아공에 생산기지를 둔만큼 이에 따른 관세 혜택과 원활한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3. 향후 대응방안으로 아직은 연구를 해보지 않았음. 4. 잠재 투자기업(향후 대아프리카 투자예상기업)에 해주고 싶은 조언: 무응답.
모 잠 비 크	바이어: S사 (지붕 제조 및 판매 기업) 1. 모잠비크 정부가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현재 자사의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TFTA에 가입하는 모든 국가들과 경쟁이 가능할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 국내에서 제조되는 산업품의 가격이 타국 대비 높은 편이며 아프리카 대륙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수가 많지 않아 TFTA가 모잠비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함. 2. TFTA로 인한 시장 개방은 가격 및 품질과 관련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자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케팅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만 투자 자원 확보에 어려움 예상 3.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질 낮은 제품에 비해 한국 제품은 좋은 품질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타국 대비 제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모잠비크 바이어들이 한국 제품을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4. 가격 인하 및 현재 모잠비크 바이어들이 우선시 하는 마케팅, 독점 계약, 및 통관 지원 등의 협력으로 바이어 지원 가능

모 잠 비 크	투자진출기업명: B社 1. 모잠비크는 SADC 공동체의 일원이며, 남아공에서 무관세 또는 매우 낮은 관세로 저가의 2차 생산품을 수입중임. 남아공 외 2차 생산품 수입이 가능하며 모잠비크가 수입하기에 지리적으로 위치한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TFTA가 모잠비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그리고 신정부 수립 이후 국내 2차 생산품 활성화를 위한 법 재정 시도 사례가 생기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모잠비크의 TFTA 체결 의지에 대한 의문 표시. 2. 우리 기업이 모잠비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은 대부분 3차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TFTA로 인한 시장 개방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또한 이번 협약에 참가하는 국가들 중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높은 품질의 제품 생산이 가능한 국가가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기업의 모잠비크 진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정도라 생각함.
에 티 오 피 아	바이어: K사 (중장비 부품) 1. 장기적으로는 사업 확대에 기대감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가격에 민감한 에티오피아 시장의 특성 상 현재 수입선에 대해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짐 3. 중장비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편으로 이에 대한 부품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됨 4. 직접적인 시장 진출 보다는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 주변국까지 커버할 수 있는 허브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위험은 줄이고 수출 시장은 확대하는 효과 기대 5. 지속적인 관계 희망 투자진출기업 : 총 12개 한국 기업이 다양한 분야 (도로건설, 병원, 전자제품, 진단키트, 가발, 의류제조, 프로젝트 등)에 진출해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었음

□ 첨부2 : TFTA 체결 전후의 교역 및 투자여건 비교
(관세/서비스/경쟁정책/지재권/투자 관련 등)

구분
가. 관세변화
나. 서비스/경쟁정책/지재권/기타
다. 투자 관련 사항

TFTA 체결 전후의 교역 및 투자 여건 비교 (현지 무역관 조사내용)	
남아공	가. 역외 공동관세는 최대 85% 관세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아프리카시장 내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진출을 통한 시장확대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나. 서비스 무역 표준화. 재산권 표준화. 인증절차 표준화. 다. 제조업 분야의 개발을 통해 해외 투자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특히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의 분야에서 남아공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남아공 정부는 자국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 촉진과 경제 분권화의 실현이 주요 골자인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을 조성. 지역 분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해외투자 유치, 인프라 개발, 정부내 산업정책 제고 및 관료주의 철폐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인센티브,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인프라, Streamlined approval processes 등의 지원 시스템을 운영. 남아공은 2000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개발지역(IDZ : Industrial Development Zone)을 조성, IDZ내 다국적 기업 및 국내기업들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해 왔으나, IDZ가 공항 및 항만(East London, Richard Bays, Coega, OR Tambo 국제공항) 지역에 편중됨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 2007년부터 특별경제구역(SEZ) 설립을 논의해옴. SEZ 설립은 산업 및 수출단지뿐 아니라, 과학기술단지(science and technology parks) 조성 등으로 확대 적용되는 바, 기존 IDZ를 업그레이드한 산업육성 정책의 일환. 15% 법인세, 산업건물공제, 고용인센티브, 관세 및 부가가치세(CCA, Customs Duty and VAT), 세제(12i Tax Allowance)등의 인센티브 제공.

수 단	가. □ 2017년 관세 협정은 Comesa 수준과 비슷하거나 낮을 듯 ○ 금번 TFTA의 통합의 상품교역 부문에 대한 관세 인하는 교역품목수의 최대 85%가 가이드라인임. 그러나 품목별로 5~8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임. 기존 Comesa 멤버국 특혜관세 수준은 비멤버국 대비 최대 40% 육박하고 있음. ○ 현재 수단이 멤버국인 Comesa는 19국이 가입국으로 금번 TFTA 전체 멤버국의 7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소 Comesa 관세협정을 능가하는 공동관세 적용을 통해 3대 관세블록의 수혜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 한편, Comesa 역내에서 활동중인 바이어들은 Comesa의 관세 특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 30%인 200여개 품목만이 현실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힘. □ 수단의 Comesa 역내 교역품목은 10% 수준, 산동물이 최대 수출 품목 ○ COMESA 자료에 따르면 수단이 참여한 COMESA간 교역규모는 지난 2000년 32억불에서 2014년 220억불로 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수단 중앙은행의 대외교역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단의 2014년 기준 아프리카 역내 총 수출비중은 전체 43억 불중 4.4억불로 약 10.1%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 COMESA 비중은 3.65억불로 약 83% 차지하고 있음. 반면 아프리카내 수입규모는 전체 수입 92억 불중 7.75억불로 7.9%를 차지함. 이중 COMESA 비중은 6.96억불로 96%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수단의 전체 교역적자 규모 48.6억 불중 아프리카 역내 교역에서 2.8억불을 나타냄. ○ 14년 수단의 아프리카 역내 최대 교역적자국은 이집트로 2.1억불을 수출하고 4.9억불을 수입하였음. 수단의 최대 교역 흑자국은 에티오피아로 1.1억불을 수출하고 0.3억불을 수입하였음. 이집트로부터 최대 수입품목은 공산품(1.5불)과 식료품(1.0억불)임. 반면 이집트에는 산동물 1.1억불을 수출하고 에티오피아에는 0.9억불 규모의 원유를 수출하였음. 이들 2개 국가의 교역비중은 수단 전체 역내 수출 비중의 87.6%를 차지하고 수입은 67.0%를 차지하여 2개국에 대한 교역 편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단의 2014년 기준 전 세계 주요 수출품목은 금(12.7억불),산동물(7.92억불), 참깨(4.6억불), 검아라빅(Gum Arabic, 0.96억불) 등이며 석유를 제외한 전체 수출금액 30.9억불중 약 85%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 금은 아랍국인 UAE에 전체 약 87%(10.1억불)을 수출하며 산동물(주로 양, 낙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체 약 67%(5.3억불)를 수출하고 있음. 참깨의 경우 중국과 아랍국에 약 60%(2.7억불)를 수출중임. 검아라빅도 역내 아프리카 수출은 15%수준(1.5백만 불)에 그치고 있음.
--------	--

수 단	나. 동 부문은 2017년 이후 분야별로 논의될 예정임(회원국내 세관행정인 통관절차, 무역구제조치, 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조치(SPS), 원산지 및 환경규정 등). 수단의 서비스업 개방 분야를 보면 법률, 의료부문 서비스 영역의 경우 자국내 인증/허가 시험을 통과해야함. 엔지니어의 경우 투자회사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소정의 등록으로 갈음하고 있음. 수단은 외국인 창업에 대한 제한분야로 종합무역상, 수출입상, 언론(신문)부문 등 4가지 부문에 대해서만 100% 단독 창업 금지하고 있음. 경쟁정책의 경우 상기 4가지 부문을 제외하면 Company Law 1925, Business Names Registration Law 1931에 근거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음. 지재권의 경우 수단은 1975년부터 세계지적권재산기구(WIPO)의 회원국이며 관련법률로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law(1996 개정)에 의해 보호하고 있음.
탄 자 니 아	가. 앞으로 TFTA본부(사무국)는 역외 공동관세를 확정 공시할 예정이나, 시행 일자 등 실행계획에서 지연 및 차질이 있을 수 있음. 역외 공동관세가 적용 시행되면 아프리카시장 접근이 수월해지는 측면도 있으나, 투지진출을 통해 적극적인 시장확대 추진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한편, 탄자니아의 경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10월 25일 예정되어 있어서 일정에 따라 의회비준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 나. TFTA 추진으로 역내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역내 서비스 교역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재권 보호는 탄자니아를 포함 아프리카시장의 성숙단계로 비추어 볼 때 원활히 시행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됨. 다. 역내 및 외국인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환경이 좋은 일부 국가 (남아공, 에티오피아 등)에 투자가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투자는 PPP등을 통해 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은 투자환경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각국은 제조업 등 산업개발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임.
D R 콩 고	가. TFTA 협정은 회원국간 상호 특혜관세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품목의 범위나 관세의 수준을 결정한 바 없으므로 TFTA가 콩고 관세에 변화를 주려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할 것임. 한편 TFTA는 26개 회원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음. - DR콩고의 경우 26개 아프리카 국가중에서도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경쟁력이 약하며, 특혜관세에 따라 역내국간 교역이 증가하더라도 이에 수출보다는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수입관세 하락(또는 장기적으로 무관세)으로 국가 재정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임. 다. TFTA가 추진 되더라도 역외국 제품은 여전히 현재의 관세를 유지하게 되어 제3국 제품은 경쟁력을 점차 잃게 됨. 제3국 업체는 TFTA 회원국내 자유무역지대에 진출(투자)할 경우 TFTA의 특혜관세가 적용.

케 냐	가. □ 기존 관세 안내 ○ 2015년 7월 현재 케냐는 자국 내로 수입되는 원재료(화학원료, 가발원사, 파스타원료, 어망 제조용 나일론 등)에 대해 전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제품의 경우 25%의 수입 관세 및 16%의 VAT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모든 수입제품에 대해 철도개발특별세 1.5%를 부과하며, 특정품목에 대해 10-25%의 소비세를 부과함. □ 무관세 미적용 품목 설정 ○ 설탕, 옥수수, 시멘트, 우유, 크림, 섬유, 쌀, 밀, 잡곡, 잡곡분말, 강가(케냐 여성들이 몸에 두르거나 치마를 만들어 입는 천), 술, 아프리카페턴 드레스, 중고의류, 음료, 플라스틱, 전자기기, 종이류 제품을 민감 품목으로 설정하여, 2017년까지 수입을 제한할 예정. □ 그 외 제품 역내 관세 조절 ○ 민감 제품 제외 TFTA 회원국 내 전면 관세 면제 및 비관세장벽 또한 허물어질 것으로 기대. 나. 민감 제품 설정 - 케냐는 이집트, 남아공 등 타 아프리카 국가와의 경쟁을 우려, 민감제품에 대해 2017년까지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내 산업 성장을 보호할 예정.
모 잠 비 크	가. 모잠비크의 TFTA 참여는 전 대통령인 아르만두 게부자의 지시로 진행.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TFTA가 모잠비크 산업 및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특히 현재 성장세를 기록 중인 국내 산업이 입을 타격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지난 6월 10일 이집트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주최 된 모잠비크 장관회의에서 산업부와 외교부 등의 주도 세력에 의해 모잠비크는 TFTA 체결을 인정하는 성명서에는 참여하나, TFTA 초안 동의서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 나. 모잠비크 산업부 부국장 셀시우 나송기(Celio Nhachungue)는 무역관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TFTA 초안의 지적재산권, 서비스 등의 조항이 모잠비크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모잠비크 정부가 TFTA 체결시 적용할 관세율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발언. 현재 26개국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TFTA 초안이 모잠 비크의 5개년 계획의 정책에 부합한지의 여부와, 모잠비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모든 정부 부처가 조사 중이라 언급. 특히 생산업 및 농업과 관련하여, 시장 개방 시 정부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 모색 중. TFTA 동의안의 각국 의회 승인 기간으로 책정된 2년 동안 TFTA 자유무역협정이 모잠비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
에 티 오 피 아	가. 에티오피아 정부의 딜레마 □ 교역 대상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인력 이동에 따른 현지 고용시장 위협과 취약한 현지 제조업 붕괴에 대해 고민 중 ○ 제조업 비중이 10% 초반대를 가깝스로 유지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정부로서는 체결 이후의 상품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 매년 무역수지 적자가 70억달러에 이르고 있어 만성적인 외환부족으로 정상적인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현지 제조업 생산제품은 대부분 내수용으로 시장 개방에 따른 제조업 기반 붕괴 우려

에 티 오 피 아	나.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영향 엿갈려 □ 지난 10년간 지속해 온 10%대의 경제성장률의 기반은 건축 붐에 따른 임대업, 호텔,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 ○ 그동안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승인여부 결정 ○ 시장 개방에 따른 자국 서비스산업 경쟁력 약화로 성장동력 이었던 기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위협 요소로 등장 ○ 한편,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대외 경쟁력 심화로 국제적인 서비스 수준으로의 업그레이드 등 국제 경쟁력 강화 기회 다. 시장 개방에 따른 사전 준비 시작 ○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금융분야 외국인 투자 진출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전환 예정 ○ 지속 가능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외국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 기술 협력 등을 통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
-----------------------	---

<끝>